

광주형 일자리 첫발부터 '삐걱'

한국노총, 노동이사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 거부

법인 설립 '투자 협약'에 배치...車공장 투자자 이탈 우려

광주형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투자자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인이 설립되자마자 투자협약과 배치되는 노동계 요구로 초반부터 사업이 차질을 빚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답답지 않은 일이다. 자칫하면 광주시가 추진한 일자

리 창출 사업이 보여주지 못한 성과만 남기고 매해 파업이 반복되는 기존 자동차 공장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17일 광주시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안전이 상정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난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차 추천이사 해촉,

임원연봉 상한제 도입, 친환경·친노동공장 설립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고 해당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문제는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설립을 위해 정한 투자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광주노사민정 협의회는 투자자간 협약과 부속서에서 벗어난 주장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 도입은 요구하지 않겠

다는 뜻으로 이를 조건으로 법인 설립이 이뤄졌다.

그런데 법인 설립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노총은 결의를 배제하고 투자협약에 배치되는 노동이사제 등을 다시 요구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갈등 중재·조정, 선진임금체계 등 제도 도입 지원, 협정서 이행여부 감독 등 역할을 담당하는데 노동계가 불참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연내 예정된 기술지원계약 체결 및 공장착공과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잡은 완성차 양산 등 일정 역시 지연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공장건설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투자협약에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은 상생형 일자리라는 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정협의회 등 각종 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게 순서인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 등을 강행하는 기존 노동운동 방식이 재현되고 있어서다. 사업에 참여한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연례 파업이 관행처럼 벌어지는 기존 공장 하나만 더 짓는 결과만 낳는 게 아니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업 첫발부터 불거진 갈등으로 투자기업이 발을 빼면 광주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한 광주에 대한 투자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1대 주주이자 노사민정협의회를 주관하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봉우 기자



'녹조' 호수공원 산책하는 시민들 17일 오전 시민들이 녹조현상으로 초록물이 든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남 한우가 '으뜸'...한우능력 평가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고흥 박태화 농가 출품 한우 영예...6000만원 낙찰

전남도는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2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고흥 박태화 농가가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199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축종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했다.

올해는 총 231농가가 참여해 지난 16일까지 3일간 체외 및 외모 심사, 도축, 최종 평가 순으로 대회가 치러졌다.

대회 결과 고흥에서 한우 110마리를 사육하는 박태화 농가의 출품 한우가 대통령상을 수상했

고, 영암 서승민 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신안 설봉문 농가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태화 농가의 한우는 출품 당시 체중이 791kg이었으며, 도축체중은 499kg으로 약 6000만원에 낙찰됐다. kg당 12만 원으로, 일반 한우고기의 6배가 넘는 가격이다.

전남 한우농가는 매년 열리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4번

의 대통령상(15~16회) 영암 서승민 농가, 19회 곡성 박희에 농가, 22회 고흥 박태화 농가)을 수상하는 등 매년 최고의 성적을 거뒀었다.

배우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한우 송아지브랜드 사업을 통해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발굴해 전남 한우의 자질이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전남 한우산업이 전국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동구, 25일까지 지산유원지 커피축제 참가자 모집

광주 동구가 지역권 활성화 위한 '지산유원지 커피축제'에 참가할 바리스타 경연대회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월 3일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인근 카페와 함께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리스타 핸드드립대회를 비롯한 △로스팅·추출 등 커피체험부스와 판매부스 운영 △머그컵과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스탬프투어 △국악 이상(E SANG)의 어반풍류 문화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서구,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광주 서구는 지난 16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9월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 우수사례가 서구 대표 혁신 우수사례 선정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1차 온라인 국민투표와 2차 열린혁신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의 영예는 <똑똑한 분리배출! 착한 재활용!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발표한 청소행정과에게 돌아갔다.

남구, 쓰레기 투기 등 자투리땅에 도시정원 조성

광주 남구는 불법 쓰레기 투기와 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투리땅에 예쁜 꽃과 나무를 심는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간에 마을정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소규모 정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봉선동 131-1번지 일원을 비롯해 송하동 185-1번지, 월산동 140-3번지 외 4개소, 주월동 755번지 일원 등이다.

남구는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 각각의 동네에 썸지공원 형태의 아담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구, 용전들노래 가을걷이 한마당 개최

광주 북구가 결실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신명나는 들노래 한마당을 벌인다.

북구는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용전마을 일원(우치동 교회 앞 공터 및 들녘)에서 지역 주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전들노래 '가을걷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전들노래는 용전동 일대에서 부르던 흥겨운 들노래(노동요)로 60년대 말까지 구전되어 오다 그 맥이 끊겼으나 2년여의 고증을 통해 1999년에 재현된 광주 북구의 대표 '농요'이다.

이번 공연은 (사)용전들노래보존회(회장 표우식) 회원과 지역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판만들기 △모찌기 △모심기 △감매기 △장원질 등의 모습을 흥겨운 농요와 함께 재현된다.

광산구,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 수상

16일 광주 광산구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회 2019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진흥원 등의 후원으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공공기관?기업의 정책소통과 SNS 활용 현황을 종합평가해 주는 상.

광산구는 'SNS 서포터즈 & 1인 크리에이터' 운영, SNS 채널별 이용자층에 맞춤형 콘텐츠 생산·제공, SNS 글쓰기·영상제작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1인 미디어시대를 선도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금 1577-0000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